

기능장애 가정에서의 사티의 성장

김 미 나
(전주대학교)

Kim, Mina. “Sarty’s Development in Dysfunctional Famil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1 (2019): 1-20. “Barn Burning” is a coming of age story which focuses on the spiritual growth of Sarty Snopes, especially in his dysfunctional family. Sarty is a son of a sharecropper, Abner Snopes, who is violent, destructive and antisocial, whereas his mother is silenced and hardly visible. Accordingly, Sarty, a 10-year-old boy, who has a low lev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depends on his father entirely and his father wields a powerful influence on him. Abner teaches him to stick to his own blood and even forces him to lie in court for family. However, when he accepts de Spain, who symbolizes justice and truth, as the third person, he forms a triangle. This three-person relationship makes him forget despair and fear caused by his father, though his inner conflict between family and justice even deepens. Finally, on the night his father plans to burn de Spain’s barn out of vengeance, Sarty refuses to act out his father’s wishes and put his thoughts into words with courage. By breaking away from his attachment to his father, Sarty gains his freedom and his own identity. (Jeonju University)

Key Words: William Faulkner, “Barn Burning”, Sarty, Coming of Age, Dysfunctional Family

I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헛간 방화」(“Barn Burning”)는 1939년 『하퍼지』(*Harper’s Magazine*)에 발표되기까지 무려 다섯 차례나 출판이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Volpe 232). 그러나 그해 최고의 단편으로 오 헨리 문학상(O. Henry Memorial Award)까지 받은 이 단편은 원래 포크너가 스놉스 삼

부작(Snopés Trilogy)의 첫 번째 작품, 『촌락』(*The Hamlet*)의 첫 장으로 사용하려고 쓴 것이었지만,¹ 그 자체로 복잡하면서도 탄탄하게 짜여진 작품이다. 이에 한스 스키(Hans H. Skei)는 이 작품을 “기교적으로 뛰어나고 주제는 충격적이지만 설득력이 있는 걸작”(58)이라고 평가하고, 마릴린 포드(Marilyn Claire Ford) 또한 “엄청난 힘과 통렬함을 가진 작품”(537)이라고 말한다. 에드먼드 볼프(Edmond Volpe)는 “포크너의 최고의 단편소설 중 하나이며, 그의 가장 심오한 작품 중 하나”(232)라고까지 극찬하고 있다.

『헛간 방화』는 가난한 백인 소작농인 애브너 스놉스(Abner Snopes)가 이웃 자영농 혹은 지주 계급과 끊임없이 갈등을 벌이고, 이를 지켜보던 과정에서 그의 아들 사티(Sarty)가 의식의 변화를 갖게 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이 이야기의 대부분이 아버지와 아들 사티의 대립, 그리고 사티 마음의 갈등을 만들어 내지만, 이 외에도 계급 간,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인종 간의 절대적인 차이를 강력하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비평은 사티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거나, 애브너의 폭력적인 태도에 주목하여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²

필리스 프랭클린(Phyllis Franklin)에 따르면 초기 비평은 애브너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사티의 중요성은 깎아내리는 경향이였다. 예컨대 찰스 미첼(Charles Mitchell)은 애브너가 왜 반복적으로 헛간을 방화했는가 하는 의문에 집중함으로써(185-89) 오로지 애브너만 다루고 있다. 엘모 하웰(Elmo Howell)은 포크너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티가 아니라 “혼돈의 세상에 지켜지고 있는 삶의 질서”(13)라며 사티를 윤리적 결정에 도달하게 만든 드 스페인(de Spain)으로 대표되는 남부의 전통적 도덕관을 강조한다(19). 이 주장은 조지 오도넬(George M. O'Donnell)의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그는 “포크너가 두 종류의 인물,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도덕성’을 대표하는 전통주의자 사토리스(Sartoris) 가문과 ‘자연주의 또는 동물주의’를 나타내는 ‘도덕관념이 없는’ 스놉

¹ 이 이야기는 현재의 제목 그대로 『촌락』의 필사본과 타자기로 친 원고 모두에 첫 장으로 나온다. (Meriwether 29)

² 이 두 갈래의 비평 외에 복잡한 서술방식에 주목하는 비평을 꼽을 수 있는데, 신영현은 “작품에 등장하는 전지적 화자의 목소리를 누구의 것으로 간주할 것이냐”(84)에 따라 각각 등장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스(Snopce) 가문이라는 두 종류의 인물을 포함한 신화를 창조했다”(Franklin 189-90)고 믿었다. 윌리엄 스타인(William Stein) 역시 애브너를 질서에 반항하는 악마의 현현으로 보고 그에게 논의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티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732).

이처럼 애브너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비평 경향에 대해 프랭클린은 사티가 주요 인물이며,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소년의 성장(a boy's coming of age)” (192)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크너가 이야기를 사티의 인식에 고정시키고 그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조금 앞서 마이클 밀케이트(Michael Millgate)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아버지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혐오감 사이에서 사티의 마음속에 생긴 끔찍한 갈등이 이 작품의 중심 문제(66)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비평의 초점이 아들 사티에게로 옮겨지면서 게일 윌슨(Gayle E. Wilson)은 사티가 집안과 절연하게 되는 상황을 상충하는 문화양식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고(280), 제인 하일스(Jane Hiles) 역시 사티가 혈연이라는 결정론과 결국 가족을 거부하고 떠나게 되는 자유의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해석한다(329). 볼프도 「헛간 방화」는 계급갈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티의 정서적 딜레마”(233)라고 단언함으로써 사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비평과 함께 이 작품이 사티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필자 또한 포크너의 소설에서 아이가 성인이 되는 이야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본 논문에서 사티가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비평들이 사티의 성장을 남부의 서로 다른 문화, 또는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대결과 같은 보다 큰 테두리에서 살펴보았다면, 본 논문은 인간이 속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며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지만 개인 성장발달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사티의 가정은 개인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과 사회화 과정이라는 가정에 부여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기능장애 가정³이라

³ ‘기능장애 가정’(dysfunctional family)은 전통적으로 가정에 부여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예를 들어 종족보존, 신체적·정서적 육구 충족, 경제적 기능, 교육 및 사회화 등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을 말한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전통적 정의 및 역할은 가부장적 문화의 가치를 기준

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사티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조명할 것이다. 이 분석에서 머레이 보웬(Murray Bowen)의 가족 체계이론 중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분화’와 ‘삼각관계’ 개념은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사티가 가족을 떠나 어둠 속에서 홀로 걸어가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그의 성장의 의미와 미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II

2.1 포크너의 기능장애 가족

포크너는 작품 속에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을 실재하는 인물들처럼 생생하게 만들어 냈다. 컴슨(Compson)가의 켄틴(Quentin)과 캐디(Caddy), 조 크리스마스(Joe Christmas), 토마스 섯펜(Thomas Sutpen), 아이작 맥카슬린(Isaac McCaslin)과 같은 인물들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가 그 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누구도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성장소설에서는 마커스(Marcus)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주인공이 세상 또는 자신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성인의 세계로 들어간다.

성장소설은 어린 주인공이 세상 또는 자신에 대해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갖거나, 또는 성격의 변화,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가 그를 성인의 세계로 향하게 하거나 이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부부만의 1세대 가정, 편모·편부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가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사티의 교육 및 사회화 기능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그의 가정을 ‘기능장애 가정’이라고 지칭한 것은 포크너가 전통적인 가족관을 갖고 있고 필자 또한 가족의 상호관계가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가족 상담과 치료 분야에서는 ‘기능장애 가정’ 대신 ‘역기능 가정’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이 외에 ‘문제 가정’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An initiation story may be said to show its young protagonist experiencing a significant change of knowledge about the world or himself, or a change of character, or of both, and this change must point or lead him towards an adult world. (Vanderwerken 12에서 재인용)

포크너의 아이들은 이와 달리 대부분 입문과정에 실패하고 역효과를 냄으로써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두고 반더워켄(Vanderwerken)은 포크너가 반 교양소설을 쓰면서 “손상된 어린 시절을 그리는 시인(the poet of the crippled childhood)”⁽²⁰⁾이라고 말한다.

포크너는 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성장이 저해된 아이들을 주로 그리는 걸까? 우리는 먼저 포크너가 가족이 사회를 형성하고 존속시키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작가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평소에도 가족의 중요성을 언급하곤 했던 그는 컴슨(Compson)가, 사토리스(Sartoris)가, 스놉스(Snopce)가, 번드런(Bundren)가 등 다양한 계층의 여러 가족의 형태를 창조하였고, 그 안에서 특정한 어떤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도널드 카티가너(Donald M. Kartiganer)는 포크너가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미국 최고의 소설가라고 평하면서, 그의 인물들은 하나의 개별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크너는 가족을 다루는 미국 최고의 소설가이다. 그러나 그의 인물들은 아무리 독특하고 잊지 못할 인물로 묘사되더라도, 예외 없이 하나같이 가족이라는 수식어구들을 뒤에 가득 달고 다닌다. 즉, 조부모,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의 누적된 정체성은 개인의 특성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맥락이다. 대부분의 포크너의 인물들은 하나의 분리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집합적 단체이며, 가족 드라마의 과정이며 산물로서, 각각의 배우는 그 가족 드라마를 떠나서는 거의 이해될 수 없다.

Faulkner is the premier American novelist of family. His people, however uniquely and memorably portrayed, invariably trail behind them clouds of familial qualifiers: the grandparents, parents, and siblings whose cumulative identity is the indispensable context of individual character. The bulk of Faulkner's people are not so much single, separate persons as collective

enterprises, the products and processes of family dramas apart from which the individual actor is scarcely intelligible. (Kartiganer 381)

카티가너의 주장처럼 포크너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법으로서 가족이라는 배경을 중시하고 있지만, 실상 그가 그려낸 가정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안식처이거나 따뜻한 사랑과 소통이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상적인 가정의 역할은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애정과 양육을 제공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사회화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포크너 작품의 가정에는 부부가 상호 보완하면서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호의적인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킴슨 부부와 번드런 부부의 경우처럼 부모의 모습은 알코올 중독이거나 절망적이고 괴팍하거나 능력이 없다.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부모를 기반으로 건전한 사랑과 친밀함이 없이 가족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도 되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기능장애 가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일그러진 이들 가족의 현실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는 사라지고 없다. 아마도 포크너는 상처받기 쉬운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가족이 따뜻하게 감싸준다는 보수적인 사회적 통념의 허상을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포크너는 이와 같은 기능장애 가족 안에서 개개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한 개인을 가족의 산물이라고 보는 포크너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머레이 보웬의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이다. 정신과 의사인 보웬은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지닌 가족을 여러 해 동안 관찰하며 이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들은 정서적으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의 생각, 감정, 행동에 크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관심과 인정과 지지, 그리고 서로의 욕구나 기대에 대한 반응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보웬은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하고 또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가 점에서 가족을 하나의 정서 단위로 보고, 한 개인을 가족이라는 전체 체계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Kerr).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간

의 상호작용이 개인행동의 기제와 본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족치료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필자 역시 가정이 개인 정체성의 모체라는데 공감하고 보웬의 가족체계이론이 사티의 성장과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사티의 경우 특히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그의 성장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족체계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아분화’와 ‘삼각관계’ 개념은 사티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티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밝히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2-2 기능장애 아버지와 사티의 성장

이야기는 치안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이 열리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상점에서 시작한다. 상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치즈 냄새와 어린 사티가 상상으로 맡는 밀봉된 통조림 속의 고기 냄새, 그리고 그의 “절망과 슬픔으로 인한 두려움”(3)⁴의 냄새는 사티의 굶주림과 박탈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사나운 핏줄의 당김(the old fierce pull of blood)”(3)으로 인한 그의 심리적 갈등을 보여 준다.

이 재판은 이웃 해리스(Harris)가 자신의 헛간 방화범으로 애브너를 고소함으로써 열린 것으로, 해리스가 설명하는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애브너의 돼지가 해리스의 옥수수 밭에 수차례 들어와서 해리스는 애브너에게 돼지우리를 수리할 철사까지 주는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화가 난 해리스는 애브너에게 돼지를 돌려받으려면 일 달러의 보관료를 내라고 요구한다. 그날 저녁 흑인 하나가 일 달러를 건네주면서 “목재와 건초는 불에 탈 수 있다고 전하래요.”(4)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헛간에 불이 나서 소실되자 해리스는 애브너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그를 고소한 것이다.

판사가 보이지 않는 가게 뒤편에 앉은 사티는 재판에 연루되는 걸 원치 않지만 갑자기 증인석에 서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해리스는 사라진 낯선 흑인 대신 사티를 증인으로 지목하고, 사티는 마지못해 험상궂은 표정의 사람들이 비

⁴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Barn Burning”은 *Collected Stories of William Faulkner*에 수록된 작품으로 이하 본 작품의 인용 시에는 괄호 속에 면수만 적기로 한다.

켜 주는 길로 끌려 나가듯 앞으로 걸어 나간다.

그는 맨발 아래의 바닥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험상궂은 얼굴들이 주는 분명한 압박감 아래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저 사람[아버지]은 내가 거짓말하길 바라는 거야.* 그는 또다시 광분하는 슬픔과 절망을 느끼며 생각했다. *그리고 난 그래야만 할 거야.*

He felt no floor under his bare feet; he seemed to walk beneath the papable weight of the grim turning faces *He aims for me to lie,* he thought, again with that frantic grief and despair. *And I will have to do hit.* (4)

사티는 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혈육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다시금 슬픔과 절망을 느낀다. 여기 ‘슬픔과 절망’이란 두 단어는 어린 사티의 심리를 단적으로 표현하며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아버지와 연관된 감정이다. 남의 헛간에 불을 지르고 어린 아들을 거짓말을 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에브너는 결코 긍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 그는 자기로 인해 잔뜩 위축된 아이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오히려 치안 판사는 열 살의 어린 사티에게 심문하는 것을 주저하고, 해리스는 화는 나지만 “빌어먹을! 저 아이를 여기서 내보내요!”(5)라며 사티에 대한 배려심을 보여주고 있다.

사티는 아버지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러지 않는다. 아버지가 ‘슬픔과 절망’의 근원임에도 사티는 거짓말로 그의 범죄를 덮어주려 하고 심지어 피해자인 해리스를 자신의 적으로 인식한다. 사티에게 그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치안판사가 앉아 있는 탁자를 볼 수 없었다. 판사 앞에서 있는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원수(우리의 원수라고 그는 절망 속에서 생각했다; *우리의 적! 나의 적이며 그의 적! 그는 내 아버지이니까!*)도 볼 수 없었다. . . .

He could not see the table where the Justice sat and before which his father and his father's enemy (*our enemy* he thought in that despair; *ourn!*

mine and hisn both! He's my father!) stood, . . . (3)

볼프는 사티의 이런 갈등을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동일시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234)이라고 주장한다. 보웬의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개념은 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단위로 보는데, 이는 개인의 정서적 기능이 가족 구성원들과 지극히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유아기에는 특히 부모나 양육자에 의존하며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어린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성장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점차 ‘분화되지 않은 가족자아 집합체(undifferentiated family ego mass)’로부터 개인의 지적, 정서적 기능을 분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아이는 성숙하면서 가족과의 정서적 애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 개인이 책임감 있게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족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자아분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분화’는 ‘정체성’에 상응하는 말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성숙한 개인으로서 독립적이다. 따라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자아의 상실 또는 감정적 융합을 겪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친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인정에 크게 의존하고, 스트레스 요인에 취약하며, 정서장애의 문제를 갖게 된다(Bowen 108-10).

보통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가족정서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강한 애착이 자녀의 정서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티 가족의 경우, 어머니 레니(Lennie)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억눌려서 발언권도 존재감도 거의 없고, 아버지가 전권을 행사한다. 이웃과의 불화로 수없이 이사를 다니지만 애브너 외에 레니는 물론 가족 누구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또 묻지도 않는다. 볼프는 레니가 “의지 없는 비참한 인물”(236)로 오히려 애브너의 의지력을 상징하며 그를 돋보이게 한다고 말한다. 레니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티에게 손도끼를 선물하며 애정을 보이지만, 강력한 애브너에 맞서지 못하고 순종하고 굴복하면서 사티의 삶에서 주변적 인물이 되고 있다. 사티가 싸움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할 때조차도 그녀는 애브너의 “앉아 있어”(6)라는 단호한 한 마디에 마차에서 내

려오지도 못한다. 이처럼 가족 내에서 애브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사티는 이런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어린 사티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개별성을 희생하고, 아버지의 생각과 말에 재빨리 순응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행동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티는 법정에서 해리스를 자신과 아버지의 공동의 원수로 인식하고, 나아가 애브너에게 “헛간 방화범!”(5)이라고 부르는 자기보다 등치가 훨씬 큰 사내애에게 달려든다. “헛간 방화범”이란 말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이다. 아버지의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어조는 물론 말하는 방식을 모방한 사티는 이렇듯 방화라는 그 행동을 지칭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를 통해 그 행위는 필요한 비밀유지 외에 일종의 전도된 신성함마저 얻는다고 파올러(Sigrid H. Fowler)는 주장한다(430).

앞선 재판에서 보듯 애브너에게 사회의 도덕이나 법과 같은 가치기준들은 안중에 없다.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마을을 떠나라는 판사의 충고에 “이 따위 사람들 사이에서 살 생각은 없다”(5)며 세상 사람들을 적대시한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킨 애브너는 그 불안과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울 가족의 일치감을 요구한다. 보웬도 불안이 가족 안으로 확산 될 때 가족의 일치감이 확연해지고,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감정을 갖길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일치감은 사랑, 혈연관계 및 충성심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고, 일치감이 확산되면 당연히 개인의 자율성은 떨어지게 된다(남순현 91-92).

그날 밤, 마을을 떠나 숲 속에서 야영을 하던 중 애브너는 사티를 밖으로 불러내어 “넌 그들에게 말할 작정이었어. [심문을 했다면] 그에게 말했을 거야”(8)라며 그를 구타하고, 금속처럼 매섭고 차가운 목소리로 혈연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

“넌 곧 어른이 될 거다. 그러니 배워야 해. 네 핏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지켜줄 핏줄을 가질 수 없을 것이야. 오늘 아침에 거기 있던 인간들 중 누구 하나라도 널 지켜 주리라 생각해? . . .”

“You’re getting to be a man. You got to learn. You got to learn to stick to your own blood or you ain’t going to have any blood to stick to you. Do you

think either of them, any man there this morning, would? . . .” (8)

사실 사티는 갈등을 느끼며 마지못해 법정에 들어갔어도 아버지를 배신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애브너는 사티의 곤혹스러워하는 태도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연민이나 따뜻함이 없이 마치 노새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티를 대한다. 젠더(Karl F. Zender)는 비록 애브너가 공격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는 그가 아들의 애정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나아가 아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사로서의 그의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52). 그러나 교사로서의 애브너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훈육방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티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애브너의 가르침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의 억박과 폭력은 오히려 사티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만 동의하는 사티는 결국 애브너와 소통을 포기하고 가족과 등지게 된다.

애브너가 정상적인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애브너에게는 사랑이 없고, 가족의 응집력을 강요하면서도 가족을 소유물 이상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과 영혼”(9)을 소유하는 것에 저항하고 또 소유되어 있지 않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정작 그 자신은 자기 가족을 소유하는 모순을 보인다. 가부장적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애브너의 요구에 레니와 처제는 침묵하고, 큰아들은 애브너를 닮아가고 사티는 갈등한다. 이 상황을 올리버 빌링스리(Oliver Billingslea)는 애브너가 결국 큰아들의 영혼을 소유했으며, 사티의 영혼은 소유하든지 안되면 그를 몰아낼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처제의 영혼은 “징징거림”으로 약화되었고, 두 딸은 그 어떤 영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293-94).

이날 밤 사티는 애브너의 습관적인 폭력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20년쯤 뒤 사티의 독백을 통해 그때 그가 하고 싶었던 말, “그 사람들은 다만 진실을, 정의를 원했을 뿐 . . .”(8)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가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셉 리드

(Joseph W. Reed)도 포크너가 전지적 작가시점과 내적 독백과 회상하는 듯한 목소리를 능숙하게 혼합하여 사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이룰 것인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한다고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44).

사티가 아버지와의 정서적 애착에서 벗어나 성숙의 단계로 올라서도록 촉진하는 계기는 드 스페인 대령(Colonel de Spain)과의 만남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새로운 소작지의 주인인 드 스페인에게 인사차 애브너는 사티를 데리고 그의 저택을 방문한다. 가난한 시골만 전전하던 사티는 길게 뻗은 진입로 너머로 나타난 드 스페인 저택의 웅장함에 압도당한다.

너무 어려서 말로 옮길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낼 수는 없었지만, 솟구치는 평화와 기쁨에 휩싸인 채 *범원만큼 크구나* 라고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으로부터 안전해. 이런 평화와 위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저 사람은 그저 왕왕거리는 말벌에 불과해. 잠깐 따끔거리긴 하겠지만 그 뿐이지. 이런 평화와 위엄의 마법이라면 이 집에 달린 헛간과 마구간과 공간에 저 사람이 획책하는 하찮은 불꽃이 닿는다 해도 끄떡없을 거야. . . .*

Hit's big as a courthouse he thought quietly, with a surge of peace and joy whose reason he could not have thought into words, being too young for that: *They are safe from him. People whose lives are a part of this peace and dignity are beyond his touch, he no more to them than a buzzing wasp: capable of stinging for a little moment but that's all; the spell of this peace and dignity rendering even the barns and stable and cribs which belong to it impervious to the puny flames he might contrive* (10)

사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사티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었을 것이다. 사티는 그동안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고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아버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찌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있었다. 그런 그가 정의를 실현하는 범정만큼 큰 드 스페인 저택을 마주하고, 막연하지만 저택이 의미하는 큰 세력이 아버지의 비행을 저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솟구치는 ‘평화와 기쁨’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저택 자체가 ‘슬픔과 절망’의 근원인 아버지와 대적점에 있는 강력한 하나의 실체로서 ‘평화와 기쁨’의 원

천이 된다. 하웰은 어린 사티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느낌을 대신해서 드 스페인 저작이 아름다움과 질서, 전통의 평온함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접한 사티는 아버지와 드 스페인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그의 최종적인 윤리적 결정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19).

여기서 드 스페인의 등장과 사티가 아버지와 드 스페인 사이에서 겪는 갈등은 보웬이 말하는 ‘삼각관계(triangles)’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삼각관계는 3인 체계의 역동적인 균형을 말하는 것으로 삼각관계에서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안이다. 보통의 이차관계는 긴장이나 불안이 초래될 때 불안정해진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 불안수준이 낮은 동안에는 그 관계가 평온하고 편안하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불안이 발생하여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둘 중 불안으로 인해 긴장감을 더 많이 느끼는 한쪽이 자동적으로 외부의 제3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이렇게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제3자는 두 사람의 긴장상태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삼각관계의 형성은 이차 간의 확산된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웬은 보고 있다(남순현 98). 이 개념에 따르면 사티는 이제 “두 아버지, 복수의 아버지와 ‘평화와 위엄’(10)의 아버지”(Billingslea 298)라는 삼각관계의 긴장상태에 놓인 것이다.

사티는 그동안 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 불안과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어리다는 치명적인 약점”(9)으로 인해 이 세계를 벗어날 수도 그렇다고 변화시킬 힘도 없었다. 이제 강력한 드 스페인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순간 사티는 아버지와 절망과 공포를 잊어버리고”(10), “*아마 저 사람도 느끼게 될 거야. 아마도 이것이 그도 어쩔 수 없었던 그의 성격을 이제 변하게 할 거야*”(11)라고 희망을 갖게 된다.

사티의 이런 심리 변화를 감지한 듯 애브너는 저작을 돌아보며 “저건 땀이다. 감동이의 땀 . . . 저기 하얀 땀을 좀 섞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12)라며 그 가치를 폄하한다. 애브너의 이 발언 때문에 일부 평자들은 그의 방화를 남부사회의 계급과 인종의 불평등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모어랜드(Richard Moreland)는 애브너의 저항을 미국 남부의 농장주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그 정치적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고(13), 앳킨슨(Ted Atkinson)은

애브너의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계급 사회에 대한 분개와 드 스페인의 재산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197)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애브너의 사회와의 갈등이 그가 착취를 일삼는 집단에 의해 자신의 존립이 위협 당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Jane Hiles 331).

그러나 이런 해석은 텍스트 자체가 제시하는 애브너의 실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가 불을 지른 헛간의 주인 해리스는 하위 중간계급인 자영농에 불과했고, 드 스페인의 흑인 집사를 “비켜, 깡둥이”(11)라며 비하하는 것 역시 저택이 흑인의 땀으로 만들어졌다고 한 그의 비난의 진정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그가 남북전쟁에 참전한 목적은 오로지 전리품이었고, 그의 뺨정다리는 말을 흠치다 총에 맞은 것으로 그를 정의의 화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짐승의 굵은 발톱 같은 손”(11)을 가진 그는 악마의 화신을 연상케 한다. 악마의 화신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포크너는 “쇠로 만든 프록코트를 입은, 검고 생기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8)으로 애브너를 냉혹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할 때 「헛간방화」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이야기가 아니며, 그의 도둑질과 [사티가 느끼는] 검소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는 “프롤레타리아라기보다는 무정부주의자”(292)라는 빌링스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애브너는 “그저 발걸음만 바꾸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금방 썩 말뚝 더미”(10)를 일부러 정확하게 밟고 지나가 그대로 저택으로 들어선다. 그리고는 기계와 같은 신중함으로 발자국을 찍어 백 달러짜리 양탄자를 더럽혀 놓는다. 애브너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도발은 그의 “탐욕스럽고 질투에 찬 분노”(11)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드 스페인은 더럽혀진 양탄자를 가져와 원상복구 해 놓으라고 요구하지만 애브너는 오히려 돌맹이로 문질러 더 망가뜨린다. 분노한 드 스페인은 훼손한 대가로 20부셸의 옥수수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애브너는 도리어 드 스페인을 고소한다.

다행히 치안판사는 애브너의 처지를 감안하여 10부셸로 감해 주는 판결을 내리는데, 사티는 이마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사티는 애브너에게 “그 사람은 10부셸도 받지 못할 거예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 . .”(19)라고 말하는데, 이는 처음 20부셸을 요구받았을 때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셨어요.”(16)라며 절대로 20부셸을 못 가져가게 자기가 다 숨기겠다고 하던

사티의 태도 그대로이다. 그렇다면 처음 법정에서부터 드 스페인 저택을 마주하는 장면에서 이르기까지 그가 보여준 갈등과 변화는 어떻게 된 것일까? 아버지의 위세에 눌려 성장이 멈춘 것일까? 사티의 내면의 소리는 점진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으로 그것이 끝날지도 몰라. 단지 양탄자 값으로 20부셀이나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것 같지만, 아버지가 영원히 예전의 그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값으로는 오히려 싼 셈이야. . . . 어쩌면 그 사람이 20부셀을 다 못 거둘 수도 있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상쇄되고 사라질지 몰라 - 옥수수와 양탄자, 화재도, 그리고 공포와 슬픔도, 그리고 두 팀의 말들 사이에서처럼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존재 - 모두 사라지고 영원히 끝날지도 몰라.

Maybe this is the end of it. Maybe even that twenty bushels that seems hard to have to pay for just a rug will be a cheap price for him to stop forever and always from being what he use to be; . . . Maybe he even won't collect the twenty bushels. Maybe it will all add up and balance and vanish - corn, rug, fire; the terror and grief, the being pulled two ways like between two teams of horses - gone, don with for ever and ever. (17)

이를 보면 사티가 애브너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20부셀을 갚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 돈이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대가로 결코 비싼 것이 아니며, 그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공포와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볼프의 지적처럼 또 다시 헛간 방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237). 즉 애브너를 옹호하는 것과 같은 그의 과장된 반응은 신영현의 주장처럼 “일종의 립 서비스”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교육을 내면화한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를 달래서 방화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교육지책”(99)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티의 결정적 순간은 그의 어머니 레니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으로 시작한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날 밤, 방화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애브너는 “초라한 의식적인 폭력(shabby and ceremonial violence)”을 위해 모자와 코트를 걸친 모습이다. “애브너! 안 돼요! 안돼! . . .애브너!”(20)라며 애원하는 레니를 밀쳐내고,

애브너는 사티에게 헛간에서 기름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한다. 사티는 그가 선택하지 않은 “오래된 핏줄”(21)의 끌림에 반응하여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생각은 도망가고 싶다. “나는 달리고 또 달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도록 말아야. 단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가 없어.”(21)라며 사티의 갈등은 절정을 향한다.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방화범의 방조자가 되고 다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야 하는 스놉스 집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안주해야 할지의 기로에 선 것이다.

기름통을 가지고 돌아온 사티는 드디어 “검둥이마저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는 적어도 검둥이는 보냈었잖아요!”(21)라며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아버지에게 해리스 집에 보냈던 흑인을 상기시키는 사티는 이제 아버지에게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성숙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감히 아버지에게 반대 의견을 표현한 사티는 포로로 잡히고 만다 (Volpe 238). 그가 핏줄과 가족 그리고 아버지마저 배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애브너가 그의 먹살을 잡아 레니에게 붙잡고 있으라고 인계했기 때문이다.

애브너가 사티를 침대 기둥에 묶어 두라는 큰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왜 굳이 레니에게 말했는지에 대한 추론은 분분하다. 먼저 파올러는 사티가 사랑하는 엄마를 치고 달아나지 않을 것이고, 레니는 결과가 어떠할지 알기 때문에 사티를 놓치지 않으리라는(435) 애브너의 계산이라고 생각한다. 켄더는 “애브너가 저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티의 육체가 아니라 정신”(53)이었기 때문에 그의 감정적 결정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이와는 달리 볼프는 사티가 독립적인 개별성을 갖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로 간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사티가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애브너의 대리인”(238)이라고 볼 수 있는 레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티는 이내 몸부림을 치며 빠져나와 드 스페인 저택으로 달려가서 방화의 위험을 알려준다. 그리곤 다시 아버지에게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 내달리던 사티는 연이은 세 발의 총소리를 들으며 “아빠! 아빠!(Pap! Pap!)”(24)라고 울부짖는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으로 슬프기는 했지만, 사티는

곧 애브너가 남북전쟁 당시 용감한 군인으로 사토리스 대령(Colonel Sartoris) 휘하에서 싸운 것을 기억하고[비록 그 기억은 잘못된 것이지만] “아버지는 용감 하셨어!”(24)라며 무사할 것이라고 자위한다.

애브너가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사티에게 애브너는 정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드 스페인에게 경고를 함으로써 사티는 아버지 이외의 제3자를 받아들인 것이며, 아버지의 가치관 대신 드 스페인으로 대변되는 공동체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의 인식을 위협하던 치명적인 세력을 제거한 사티에게서 마침내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다(Volpe 238). 그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독립을 이루었다는 것은 포드가 지적한 것처럼 애브너를 부르는 그의 호칭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슬퍼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애정 어린 호칭인 “아빠! 아빠!”로 부르다가 잠시 후에는 공식적인 “아버지! 아버지!”란 호칭으로 울부짖으며 아버지와 관계의 재정립을 보여준다(538).

집을 떠나 숲으로 내달린 사티는 아직 어두운 숲속에 있다. 한밤중에 산마루에 앉아 그는 “시간이 자정인지, 자신이 얼마나 왔는지 알지 못했다”(24)고 말한다. 그러나 월슨은 어린 사티와 달리 독자는 사티가 어디까지 왔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티는 “혼돈에서 우주”로 “죽음에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고 말한다(288). 이는 사티가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아버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사티는 아직 멀고도 힘든 길을 가야하며 우리는 그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자정은 시간상으로만이 아니라 어린 사티의 삶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새로운 날의 시작을 나타낸다. 어둠이 사라지고 날이 밝아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티의 모습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화자 역시 우리로 하여금 사티의 미래에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 그는 밤이 거의 끝나고 새벽인 것을 알았다... 그는 일어섰다. 몸이 좀 뻣뻣했지만 걸으면 나아질 것이고 추위도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 he knew it was almost dawn, the night almost over... He got up. He

was a little stiff, but walking would cure that too as it would the cold, and soon there would be the sun . . . He did not look back. (25)

화자는 사티가 아직은 춥고 몸도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불편한 상황들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과거는 돌아보지 않으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티의 모습을 통해, 그가 앞으로의 여정에서 더 성숙해지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III

지금까지 포크너의 단편 「헛간 방화」를 사티의 성장소설로 보고 그가 어떤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성숙하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티의 가정은 포크너가 그리는 대부분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소통이 없고, 아이들의 성장에 적절한 양육이 주어지지 않는 등,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능장애 가정이다.

사티의 아버지 애브너는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인물로 세상 사람들을 적대시 하며 오로지 가족과 혈연에 충성할 것을 사티에게 명령한다. 사티의 어머니 레니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애브너의 위세에 눌려 거의 눈에 띄지도 소리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티는 절대적인 아버지의 영향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어린 사티는 애브너와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관계를 보이며 자아분화수준이 낮다. 그는 애브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주먹질도 하고 애브너와 다른 자신의 생각을 숨겨보기도 하지만, 위증까지 강요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압제적 태도에 갈등이 생긴다.

사티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불안과 갈등은 “오래된 사나운 피”와 “정의와 진실”(3) 사이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사티는 평화와 질서를 상징하는 드 스페인을 제3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서서히 아버지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애브너가 드 스페인의 헛간 방화를 계획한 날, “두 팀의 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끌리던”(17) 사티는 마침내 아버지

에게 저항하고, 혈연을 거부하고 이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떠난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의 결정론적인 언어나 사티가 아버지를 배반한 점을 이유로 일부 평자는 사티가 아버지의 패턴을 반복할 운명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Hiles 330). 하지만 사티의 행동은 애브너와 달리 보복성이 아니며 사랑과 연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티는 오랜 갈등 끝에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하고 아버지와 다른 자신만의 운명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과 연민’은 포크너가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아주 명쾌하게 단언한 인간 마음의 오래된 진리이다. 또한 작가에게 이야기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인간 삶의 유동성을 포착하여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멈춰 있어야 한다”(University 239)는 포크너의 말을 상기할 때, 「헛간 방화」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티의 삶에 초점을 맞춘 멋진 양가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Works Cited

- Atkinson, Ted. *Faulkner and the Great Depression*. Athens and London: U of Georgia P, 2006. Print.
- Billingslea, Oliver. “Fathers and Sons: The Spiritual Quest in Faulkner’s ‘Barn Burning.’” *Mississippi Quarterly* 44.3 (1991): 287-308. Print.
- Bowen, Murray.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4. Print.
- Faulkner, William. *Collected Stories of William Faulkner*. New York: Vintage Books, 1977. Print.
- _____. *Faulkner in the University: Class Conference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1957-1958*, Ed. Frederick Gwynn and Joseph L. Blotner. Charlottesville: U of Virginia P, 1977. Print.
- Ford, Marilyn. Claire. “Narrative Legerdemain: Evoking Sarty’s Future in ‘Barn Burning.’” *Mississippi Quarterly* 51.3 (1998): 527-40. Print.
- Fowler, Sigrid Hanson. “Lennie Snopes, A Closer Look.” *Mississippi Quarterly* 64.4 (2011): 423-38. Print.
- Franklin, Phyllis. “Sarty Snopes and ‘Barn Burning.’” *Mississippi Quarterly* 21.3 (1968): 189-93. Print.

- Hiles, Jane. "Kinship and Heredity in Faulkner's 'Barn Burning.'" *Mississippi Quarterly* 38.3 (1985): 329-37. Print.
- Howell, Elmo. "Colonel Sartoris Snopes and Faulkner's Aristocrats." *Carolina Quarterly* 11 (1959): 13-19. Print.
- Kartiganer, Donald M. "Quentin Compson and Faulkner's Drama of Generations." *Critical Essays on William Faulkner: The Compson Family*. Ed. Arthur F. Kinney. Boston: G. K. Hall, 1982. Print.
- Ker, Michael E. "One Family Story: A Primer on Bowen Theory." *The Bowen Center for the Study of the Family*. 2000. Web. 26 July 2018.
- Milgate, Michael. *William Faulkner*. London: Oliver and Boyd, 1961. Print.
- Papero, Daniel V. *Bowen Family Systems Theory*. Trans. Sunhyeon Nam. Seoul: Sigma Press, INC., 2012. Print.
[과페로, 다니엘. 『보웬 가족치료를 위한 짧은 이론서』. 남순현 역.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2012.]
- Reed, Joseph W. Jr. *Faulkner's Narrative*. New Haven: Yale UP, 1973. Print.
- Shin, Younghun. "Faulkner's Bildungsroman: 'Barn Burning.'"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38.4 (2012): 83-104. Print.
[신영현. 「『헛간 방화』에 나타난 사티의 성장의 의미.」 『영어영문학연구』 38.4 (2012): 83-104.]
- Skei, Hans H. *Reading Faulkner's Best Short Stories*.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1999. Print.
- Stein, William Bysshe. "Faulkner's Devil." *Modern Language Notes* 76 (1961): 731-32. Print.
- Vanerwerken, David L. *Faulkner's Literary Children: Patterns of Development*. New York: Peter Lang, 1997. Print.
- Volpe, Edmond. *A Reader's Guide to William Faulkner: The Short Stories*. New York: Syracuse UP, 2004. Print.
- Wilson, Gayle Edward. "Being Pulled Two Ways: The Nature of Sarty's Choice in 'Barn Burning'." *Mississippi Quarterly* 24.3 (1971): 280-88. Print.
- Zender, Karl F. "Character and Symbol in 'Barn Burning.'" *College Literature* 16.1 (1989): 48-59. Print.

김미나 (전주대학교/교수)

주소: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이메일: mnkim@jj.ac.kr